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와 복지수준 토론

심 순 지 (충남농업기술원 생활개선과 과장)

여성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는 현대사회에서 농촌여성의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과거 가사전담과 단순한 농업보조자로서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현재에는 가사전담 뿐 아니라 농업에서도 생산, 유통, 경영 등 전반적인 분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농업에서의 역할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런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농촌여성의 복지 증진에서 농촌여성 노동실태의 현 상황 파악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면에서 발표자의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와 복지수준"에 대한 연구에서 농업생활활동의 분담상황과 농작업 종사내용, 농업경영 종사내용 등을 파악하여 노동실태의 상황파악에 접근한 것에 공감이 간다. 그리고 농업노동에서 부부 노동의 평가와 경제적 자유도 파악도 복지수준에 대한 기본자료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연구는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며, 농작업과 가사작업의 효율화 대책은 농촌여성의 복지수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이 간다. 농촌과 농촌여성에 대한 연구에 힘써 주신 점에 대한 큰 고마움을 느낀다.

그러나, 발표자의 내용 중 몇 가지 아쉬운 점은 문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접근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분석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주부의 가사분담에서 가사분담 비율만 다루어 남성들의 가사분담이 얼마나 질적인 면에서 이뤄지는가 다루는 것에는 미비하다. 예를 들어 남편의 가사분담으로 청소를 담당할 경우 청소는 남편이 전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이나 한달에 한 번을 하는지 알아야 가사분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

그리고, 남성들과의 가사분담에서 남성들은 여자들의 농업노동과 가사 노동을 합해서 생각할 경우 노동시간이 남성들보다 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성은 힘든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여성들의 노동량과 남성들의 노동량을 비교해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것으로 부족하다면 여성들이 투하할 수 있는 힘의 총량과 남성이 투하할 수 있는 힘의 총량이 틀린 것을 전제로 각각 투하가능한 총 노동력에서 몇 %를 투하하고 있는지 비교해서라도 그 이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문제의 접근에 대한 아쉬움은 노동보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의 보수를 받는지, 누구에게서 받는지 만을 다루어 과연 정당한 보수를 받고 있는지 등의 더 중요한 문제는 다루지 않았고, 가사노동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아 아쉬웠으며, 그리고 과연 여성만의 재산이 있는지 등의 문제도 다뤄지지 않았다. 특히 현재 농촌여성의 지위는 도시에 비하여 전통이 더 강한, 다시 말해 유교적 잔재가 더 많은 농촌이 낮은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복지의 기반인 재산권의 문제에서도 노동보수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의 대가와 전체적인 재산관리를 우선 다뤄야 할 것이고, 보수에 대해 과연 농촌여성은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보수가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적당한 보수액을 책정할 이론적 기반도 제시되어야 한다.

발표자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농촌여성의 복지수준 향상에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여성의 농업노동실태와 관련 복지증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그동안 연구발표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전문 여성농업인은 적극 육성(전종철,1999 ; 정기환,1999)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농업계 고등학교, 대학등 학교교육에서 여성에 대한 교육과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젊은 여성인력들을 농업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역할과 농기계기술수준, 농업기술수준 등이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농촌진흥청, 1997).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에게 우선 해당되는 것은 농가의 주요작목에 대한, 또는 농촌여성이 전담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기술의 습득일 것이다. 영농에 참여하는 농촌여성이 영농기술, 농업 경영능력, 의사결정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영농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촌여성의 생활기술, 취미과제 등에 대한 교육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이 농업에 참여하려면 여성에 맞는 농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노령화율이 높아가는 농촌 인력현실에서도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일로서 가족농업, 기계화 농업, 고부가가치 농업의 일이 될 것이다. 작업장의 개선, 작업환경의 개선, 쉬운 농기계 이용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힘이 아니고 기술로써 농업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노동력을 줄여줄 수 있는 농기계 보유현황은 '80년대를 기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농림수산부, 1998), '97년 현재 벼농사의 경우 농작업기계화율은 이앙 98%, 수확 97%, 방제 98% 등 평균 98%인 데 비해(농림부, 1997), 김매기, 수확, 선별, 포장 등은 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여성이 전담하는 일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촌진흥기관에서는 농작업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및 수확, 운반, 선별, 포장 등을 보조하는 농작업 보조기구를 개발 보급하고 있는데, 기존농법의 고수, 대량화 시장성의 부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확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농작업 후의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력 재충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마을단위 생활복지시설인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시설 개소수의 극소화, 사용자의 인식부족 등이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농작업 환경이나 농작업의 기계화, 건강관리 등 개인적인 면까지도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됨을 의미하며 보다 많은 연구와 예산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여성의 기술을 고도화하여 고급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고 가공 및 유통을 여성이 담당하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게 하자는 정기환(1999)의 의견은 여성이 힘든 농업노동에서 벗어나는 방향을 언급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농촌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농촌과 농촌여성에 큰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 토론발표를 마친다.